

빠르고 정확하게, 전업 번역가의 삶은 레옹과 같다

이충호

아마 나처럼 재능이 없으면서 <출판저널>에 글을 쓸 정도(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지만)의 전문번역가가 된 사람은 드물 것이다. • 나는 고등학교 때 혼자서 <정통 종합영어> 본 것 말고는 어떤 영어 학습교재도 사본 적이 없고, 학원도 다닌 적이 없다. • 영어회화도 잘 못하고 히어링도 좋지 않아 TOEIC 시험을 본다면 700점도 넘기 힘들 것이다. • 대신에 학교 다닐 때 원서는 이것저것 많이 보았는데, 내가 한 영어공부라곤 그게 다였다. •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 어느새 나는 과학전문 번역가가 되어 있었다. • 부족한 재능은 순전히 노력으로 메웠지만, 행운도 따라주었다.

처음에 나는 편집자로 일을 시작했다. 영어사전은 몇 권이 많도록 보았지만, 국어사전은 뒤적여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에 국어공부는 출판사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시작한 셈이다. 편집자란 알다시피 띄어쓰기 하나, 쉽표 하나 가지고 다투는 좀 피곤한 사람들이다. 처음에 나는 띄어쓰기의 비밀을 풀려고 하루에 100번씩 국어사전을 뒤적였다. 그러고는 얼마 후 결론을 내렸다. 국어사전의 띄어쓰기는 전혀 믿을 게 못 된다! 처음 들어간 출판사는 7개월 만에 그만두었는데, 경력이 20년이나 되는 부장이 띄어쓰기를 태연하게 잘못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울 게 없는 곳에 더 있을 필요가 있으랴 하는 생각에 사표를 던졌다.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살면 손해를 보기 십상이지만, 젊을 때에는(특히 글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치열한 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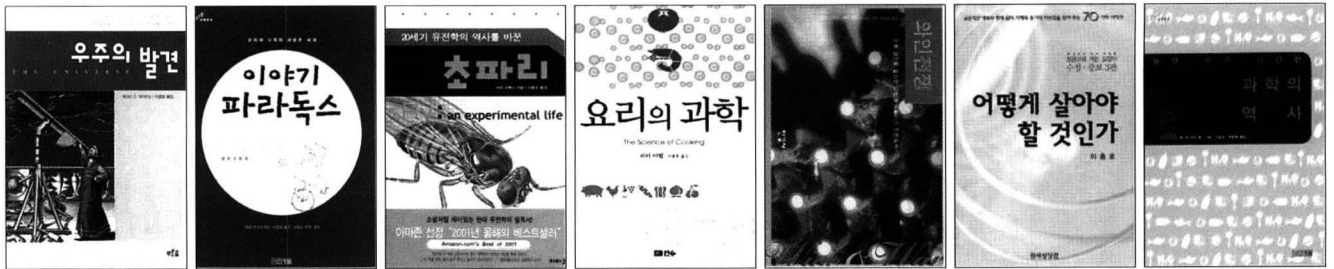
출판사를 그만둔 뒤 전공을 살려 제약회사 실험실에서 1년 반 동안 일하다가 다시 출판계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이원명 부장을 만났다. 선생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 20여 년 간 국어 교과서를 직접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학문에 박학하신 분이라,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었다.

3년쯤 지난 후부터 번역을 조금씩 시작했지만, 초창기에

번역한 작품을 보면 오역에다가 틀린 문장 등 엉망인 부분이 부지기수 발견된다. 일류 작가들은 원고를 넘기면서 일자일획도 손대지 말라고 한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제발 손을 많이 대 문장을 잘 다듬어달라고 부탁한다. 나는 번역한 뒤 교정을 꼼꼼히 보면서 문장을 많이 뜯어고치는 편이다. 그래도 모자라는 재주는 어쩔 수가 없어 번역투를 완전히 씻어내지는 못한다. 편집자 중에는 그러한 문장을 근사한 표현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편집자를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요즘 편집자 중에는 교열이나 교정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원칙을 제대로 모르는 편집자도 가끔 있다. 그러면 성질 못된 나는 사정없이 편집자를 야단친다. 편집자가 누구인가? 저자나 번역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잡아내 바로 고쳐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편집자를 존경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은 실력을 갖고 닦으라고 요구한다.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바둑만 해도 어린 시절부터 학교도 포기하고 연구생이 되어 몇 년 동안 오로지 바둑에만 몰두하는 혹독한 수련을 거친 뒤에야 프로기사가 되지 않는가!

나처럼 순전히 번역만으로 벌어먹고 사는 전업 번역가의 삶은 살인청부업자인 레옹과 비슷하다. 일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은 대부분 의뢰인의 전화로 시

이 글을 쓴 이충호는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과학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블랙홀 여행》 《과학의 슈퍼스타 20》이 있고, 주요 번역서로는 《이야기 파라독스》 《최초의 인간 루시》 《도도의 노래》 《초파리》 《퀴크의 마법사》 《와인전쟁》 《우리를 둘러싼 바다》 등이 있다. 2002년에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로 한국과학기술도서번역상을 받았다.



작된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에만 몰두하기 위해 생활방식을 최대한 단순화시킨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고, 자가용이나 휴대폰도 없고,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는다(편집자하고 되도록이면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데, 친해지면 자꾸 귀찮은 일이 생긴다). 한 가지 일이 끝나도 기껏해야 하루 정도 기분 전환하거나 곧바로 다음 일에 착수한다. 어떻게 보면 번역기계 같다. 물론 전문번역가의 삶이 다 이렇게 삭막한 것은 아니다. 각자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고, 재미있고 낭만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러한 삭막한 방식을 선호한다.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일은 쾌적한 작업실을 따로 마련해 출근해서 한다. 프리랜서 중에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돈이 좀 들더라도 작업실을 하나 마련해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다. 아침 10시쯤 출근해서 윈두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 일할 때에는 집중해서 하지만, 일하다가 졸리면 자고,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바람을 쐬고 싶으면 외출도 한다. 그런데 일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여유를 부리지 못할 때가 많아 아쉽다. 퇴근은 7시쯤 하지만, 갑자기 일하기 싫어지면 언제라도 일어선다.

아무리 해도 외국어가 이질적인 언어처럼 보이는 내게 번

역은 암호 해독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무엇보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의 코드만 알아내면, 저자가 문장을 쓰면서 느낀 감정까지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장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기 때문이다(오해할까봐 덧붙이는데, 그래도 나는 직역을 중시한다). 그 코드를 빨리 알아내지 못하면 번역하는 데 고생을 하게 되고, 번역하는 재미도 없을 뿐더러 번역한 문장도 죽은 문장이 되기 쉽다. 그런데 저자에 따라 코드가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역이 거의 다 끝날 때까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실 처음부터 번역을 맡지 말았어야 옳은데(따로 책임자가 있을 것이므로), 세상을 살다 보면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가끔 사람들이 직접 책을 써보라고 권하는데, 그럴 때면 나는 번역이라도 좀더 잘 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다. 그것은 진심이다. 늘 부족함을 절감하며 오늘도 암호를 해독하느라 끙끙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번역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바둑을 즐기는 나는 고수들의 바둑을 보면서 어!? 하고 감탄할 때가 많은데, 정석을 충실히 따르다가도 가끔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하고 자유로운 발상이 탄성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번역을 하면서도 그러한 깨달음이나 감동을 종종 느낀다면 너무 지나친 표현일까? **이충호**